

CJ-대상, 라이신 과징금 줄었다!

EU, 가격 담합혐의 벌금 하향조정 ... Kyowa 및 Ajinomoto는 그대로

유럽연합(EU) 고등항소법원이 라이신 가격 담합혐의로 CJ, 대상 등 3개 관련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 AP 등 외신은 현지시간으로 7월9일 EU 항소법원이 CJ, 대상 등 2개 한국기업과 미국의 아처 대 니어스 미들랜드(ADM)에 대한 과징금을 낮췄다고 보도했다.

EU 고등항소법원은 동물성장 촉진제인 라이신 가격담합을 이유로 CJ에 부과됐던 과징금을 1220만유로에서 1010만유로로, 대상의 과징금은 890만유로에서 710만유로로 인하했다.

세계 최대 곡물가공기업인 미국 ADM에 대한 과징금도 4730만유로에서 4390만유로로 낮췄다.

그러나 CJ 등과 함께 항소했던 일본 Kyowa Hakko Kogyo에 부과했던 1320만유로의 과징금은 그대로 유지 했다.

이에 따라 CJ 등 4개 담합기업에 대해 카르텔 형성을 이유로 부과됐던 과징금 규모는 8160만유로에서 7430 만유로로 730만유로 감소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일본 조미료 생산기업 Ajinomoto는 항소하지 않았다.

<Chemical Journal 2003/07/11>